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5.12.9.(화) 16:00	배포	2025.12.9.(화)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국 장	임권순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김용진 (02-3145-7590)

금감원, 고위험 해외투자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

I 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

- '25.12.9.(화),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
 -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,
 - 12.15.(월)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

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(CCO)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5.12.9.(화) 16:00~17:00
- 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
- ☑ 참석자 :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,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,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
 - (금 용 감 독 원)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,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장 등
 - (금융투자협회) 정형규 자율규제본부장
 - (주 요 증 권 사) KB, NH, 메리츠, 미래, 삼성, 신한, 키움, 토스, 하나, 한국 등의 CCO 및 준법감시인

Ⅱ 주요 논의내용

-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과 관련하여, 증권사가 수익성에 치중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
- ① 상품출시 이전에,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
 - 상품판매시 해외 자본시장의 고유 위험, 환율 변동성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내 절차 시행
- ②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하여,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 관리 및 성과보상(KPI)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청
- ③ 해외 주식·파생 상품의 과당 매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·광고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강조
 - 금융투자협회도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前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,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

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
 - 향후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